

# 비대면 여가·교육 서비스... 나주 20곳에 스마트 경로당

###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4억 3000만원 투입 화상 시스템 구축 시공간 제약 없는 복지...2026년까지 전체 경로당 점진적 확대

나주시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나선다.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스마트 경로당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3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핵심인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양질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경로당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에 소외된 어르신을 위해 주·여가·생활 공간인 경

로당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시는 현재 읍·면·동 20곳에서 619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전체 노인 인구 2만 8254명 중 1만8315명(64.8%)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읍면동 경로당 이용 어르신 6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무료함', '정보 취약'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이 전체 약 95%로 집계됐다. 디지털 정보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함'이라고 답해 단기적 지원보다는

'정보의 자립화'를 위한 장기적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먼저 읍면동 경로당 20개소에 스마트 텔레비전 등을 보급하고 비대면 여가·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3억1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 3000만원이 투입되며 2026년에는 전체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르신의 일상생활 공간인 경로당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강한 노년,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겠다"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이 지역의 마을 경로당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대숲·계곡물...자연의 소리 찾아 담양 명소 여행

### 새 콘텐츠 '청각여행 프로젝트' 시각장애인 등 관광약자 대상 죽녹원·한재골 코스 개발 해설사 교육...내년 정식 운영

담양군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청각여행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담양군은 오는 11월 1일까지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과 한재골 근린공원에서 서울과 부산 거주 시각장애인인 관광약자 80명을 대상으로 'GKL 청각여행 프로젝트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KL 청각여행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에게 청각 기반 관광콘텐츠를 제공해 문화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담양군과 GKL 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담양 명소인 죽녹원·한재골 근린공원 코스를 만들었으며, 참여자에게는 녹음기·헤드셋 등 자연의 미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전용 장비가 제공된다.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등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대나무 나이에 따라 두들기면 어떤 소



'GKL 청각여행 프로젝트 팸투어' 참가자들이 죽녹원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리가 나는지, 계절마다 어떤 소리에 집중하면 좋은지 등 전문적 해설과 열매들을 만져보는 시간도 갖는다. 군은 이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사전 가이드 교육 등을 통해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화순 전입 후 20개월 거주하면 1인 20만원

### 조례 개정...전입장려금 지급

화순군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화순군으로 전입 후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화순군 전입장려금은 당초 전입신고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 원을 나눠 지급해 왔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후 20개월 경과 시 20만 원의 장려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시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20개월 경과 후 주민등록 확인 등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장려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조례 개정일인 2024년 10월 14일 이전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정책과장은 "농촌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현시점에 전입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흥군 "가을철 산불 발생 제로 도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초동진화 대응체계 교육 등



장흥군이 2024년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지난 14일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산불방지 위한 결의문 낭독, 산불관련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개인용 진화장비 분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산불 초동진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은 앞으로 관내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3개조로 편성돼 산불발생 시 현장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논·밭 두렁 불 지르기 등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은 물론 산림과 인접한 유휴농지의 나뭇가지 및 영농폐기물 등 인화 물질을 제거 작업도 함께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함평 국향대전 자원봉사자 친절·안전교육

함평군은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자원봉사자 5개 단체 17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친절·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친절 교육과 축제 운영 현황, 프로그램 안내, 안전관리 교육, 활동 요령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작지만 강력한 친절의 말들'을 주제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고,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 역량을 강

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올해 국향대전에는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다육식물관, 친환경농업관 등 15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질서 유지, 홍보 안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상의 함평군수는 "여러분이 함평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국향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화순 능주들소리보존회, 한국민속예술제 전승상

화순군은 '화순 능주들소리 보존회'가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전승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복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화순 능주들소리 보존회(대표 김기조)는 80명의 출연진이 참가했다. 보존회는 모찌기 소리, 낮은 사소리, 자진 상사소리, 초벌매기, 한 벌매기, 굽벌매기, 만드리(풍장소리) 등 총 8과장으로 구성된 도내기 공연을 펼쳤다.

그 결과 화순의 고유 전통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한 점을 인정 받아 전승상을 수상했다. 능주들소리는 지석강변 비옥한 농토를 안은 능주면에서 농사일을 지을 때 부르던 소리로 지난 2013년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5호로 지정됐다. 강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화순의 대표 전통민속예술 작품의 가치를 전국대회에서 빛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강진군, 목은지 품질 관리 체계화 '전통 맛' 계승

### 31개 업체 품질분석 용역 발주 연말까지 염도·산도 등 분석

강진군이 최근 지역 특산품인 강진목은지(사진)의 위생·품질과 제조 과정 관리를 강화하며 전통의 맛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위생관리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목은지 품질분석 용역을 발주, 관내 목은지 제조·판매 영업등록을 마친 생산업체의 31개 시료를 전남바이오통합연구소로 보내 관능 평가 및 장비 활용 분석(ph·염도·산도)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업체별 분석자료를 반영해 더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제조 레시피를 개선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목은지 대량 유통·판매를 위한 법인과 지원사업을 신설해 HACCP 인증 시설구축에 아낌없이 지원했다.

HACCP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철저한 위생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맛 좋은 상품을 받아들 수 있게 됐다. 생산자는 제3자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돼 소득도 증대했다. 강진군은 비영리 단체인 강진목은지 사업단을 구성해 매월 정례회를 개최, 시장정보와 목은지 제조 및 위생, 품질향상 노하우 공유와 함께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목은지는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결합된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으로 특유의 깊은 맛과 풍미가 살아 있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목은지 생산·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품질과 위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2024 장성 귀농학교 농업 기초 교육 성료

장성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교육이 최근 10회차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장성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4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농업·농촌의 이해와 귀농·귀촌 토지·주택 구입 관련 법률 및 유의사항, 세무 상식 등 분야별 교육부터 작물 재배 기술, 농기계 활용 실습 등 농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뤄 호응을 얻었다. 우수 귀농인, 선도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작물의 특성에 대해 배우고 선배 농업인으로부터 귀농 경험담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장성군은 우수창업 활성화와 지원사업과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귀농인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사업비 50억원 규모



장성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교육 참가자들이 농업 현장을 찾아 작물 재배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장성군 제공>

부터 귀농 경험담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장성군은 우수창업 활성화와 지원사업과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귀농인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사업비 50억원 규모

전라남도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성 북부권 발전과 인구 유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